



한국문화교류 소식



9 호 2013년9월15일 발행 발행인 이광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121-813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1-1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무얼 생각하고 뭘 하고 있는가?



전영섭
본회 감사, 변호사

세계 도처에서 한·중·일은 냉혹할 정도로 치열한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대표 문화인 한국어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속적으로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가 제 2, 제 3 외국어로 채택되어 학교 교육과정에 편입되는 일일 것이다. 1996년, 미 대학 수능시험 SAT-II 외국어에 동양 언어 중 중국어, 일본어에 이어 한국어가 채택

된 이래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또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미국 내 정규학교에 중국어반 1,000개교, 일본어반 700개교가 존재하는 것에 비해 한국어는 100여 개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2011년 3월,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는 미국 내 학교에 한국어 정규과목을 10년 내 1,000개교로 늘리는 ‘Ten Thousand Project’를 1단계 목표로 설정하여 창립되었다. 여기에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서 한국어로 경기를 주관하고 학생의 예절 및 정신 교육에 효율적인 태권도 과목 또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K-Pop, 드라마, 게임 등 한류의 열기가 대단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이 시기에 맞추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한국은 중·일과의 문화전쟁에서 앞설 수 있다. 이를 위한 요체는 현지 동포의 적극적인 호응아래 현지 교육 정책에 따라 각 학교에 한국어·태권도 반 개설, 자격과 실력을 갖춘 한국어



교사 및 태권도 사범의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의 지원에 최소한 10개 지역에서 추진체가 구성되고 모금 활동이 더해지면 금상첨화가 된다. 여기에 추진체와 한국 정부와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며 민간단체로서 맡은바 헌신이가해지면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본다. 그 역할 담당자는 ‘뜨거운 가슴’과 ‘사심 없는 조국애’를 가진 역군이면 더욱 좋다. 정치인과 정치적 참여를 일체 배격하며 오로지 한국문화 정체성 계승이라는 민간단체 본연의 취지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ICKC는 탄생한 것이다.

이 운동은 미국 230만 교민에서 시작되어 730만 재외동포를 넘어 글로벌로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ICKC-서울, ICKC-뉴욕, ICKC-시카고, ICKC-하와이가 구성되었고 기타 지역 또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ICKC-뉴욕의 경우,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고등학교 한국어반의 경우 2년 만에 27명에서 130명으로, 리치필드 고등학교 한국어반은 1년 만에 36명에서 80명으로 늘었으며, 그 밖의 여러 곳에서도 자생적으로 추진회가 결성되어 한인사회를 결속시키며 학교에 내야 할 지원금과 한국어 교사 양성 기금 등 필요한 재원을 모금하는 동포들의 후원과 의욕이 합쳐져 성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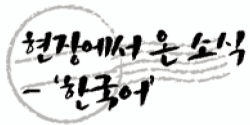
이와 같은 뉴욕의 예는 우리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주지만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고 평가되는 몇 가지 파동은 우리의 운동 의욕을 심히 좌절시키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지난 일과 추징금 문제, 경제인과 지도층의 부도덕과 비윤리,

공무원 비리 등 푸른 초원에 달리는 고라니를 잡아먹으려는 표범 같은 불법적 약육강식이 난무한 것 말이다. ‘정의’가 무엇인지, ‘조국애’가 무엇인지, ‘자부심의 가치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두를 돌아보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의 정신문화적 수준에서 사회정의는 지켜질 수 있고 동북아에서의 문화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을까? ICKC 발기인으로서의 의욕은 산 너머 남촌만을 그려야 하는가? 그래도 우리에게 세종대왕과 백의중군한 충무공이 있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자식 교육을 위해 희생한 ‘우리 어머니’의 혼이 있어 위안을 삼아 보며 우리의 얼을 살리고 역사적 정의적 가치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갖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지성의 산실인 서울대학교(공법학회)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논하는 공개토론장을 마련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 토론은 공개적이며 참여자나 시간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신적 무장을 할 때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로운 방법으로 ICKC가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하여 땀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오늘날까지 ICKC-Seoul이 이사장 이하 발기인들의 노력과 재정위원장 및 회원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어 왔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새로운 활로 모색과 ‘뜨거운 가슴’이 새롭게 수혈되어 세계화로 나가기를 희망한다.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내 할 일을 아전인수가 아닌 역지사지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프랑스 정규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문화교육



신현숙
유럽한글학교협회의회장

프랑스 정규 중, 고등 교육 기관에 한국어 교과목이 개설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8년부터 ‘아뜰리에’라는 이름으로 특별활동식의 한국어 및 문화를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교육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프랑스 내 몇 개 학교에서 시작하였고, 본인도 2009년부터 이에 동참하였다. 그런데 본인이 거주하는 곳은 프랑스 지방 소도시로 한국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인인 남편의 인맥을 활용하여 그 지방 유명 사립 고교의 교장을 만나, 4시간여의 설득 끝에 첫째 중학교 1,2학년에 연간 10시간의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 시도가 한국어 개설 및 정착의 단 한 번의 기회라 생각하여 중학생들이 매료될만한 한국문화 활동을 중심으로(붓글씨, 태권도, 한국음식 만들기 등) 한국어 수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 노력의 대가로 그 다음해인 2010년에는 수업 시

간이 배로 늘어나 각 학년 연 20주 수업이 되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 수업 20시간, 부설 대학 국제 무역학과 1, 2학년에도 15주 수업이 새로 개설되었다. 문제는 교과목은 모두 한국어이되 나이와 학년에 따라 그들의 흥미 유발 가능성이 다르므로 교안을 각기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었다. 즉 모든 학년 공통되게 한글 자모 학습을 우선 과제로 배정하고, 중학생은 움직임이 많은 체육이나 문화 활동(태권도, 탈춤, 종이 접기, 한국 동요 배우기 등)을 중심으로 하고, 고등학생은 서예, 한국역사, 한국 문학, 한국 정치와 지리 등 프랑스 정규 교과목과 연계성 있게 교안을 작성하였다. 한편, 대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과의 특성과 함께 그들이 조만간 사회에 진출할 것임을 감안하여 한글 자모 습득 이후 바로 상업용 실용 회화 시간을 배정하고 최근 5년 간 한국의 경제 지표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치를 중점 강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간 문화 차이에서 올 수 있는 무역 거래상 오해와 그 방지책 등을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하였다. 실제로 한국 견본 상품을 가지고 수입 상담을 하는 역할극 연습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도록 하였다. 이후 이 학생들을 한국 기업에 보내 2달간 연수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무역학 실습은 물론 한국어 및 문화에 흠뻑 젖어 들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2년이 지나자 한국어는 각 학년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어 1년 내 한국어 교육 과정이 정착되었다. 지난 2012년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 과목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투어

수강 신청을 하여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 열기로 인해, 산학 협동을 추구하던 본교 교장은 지역 내 기업가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한국과의 산업 교류를 기획하여 2013년 4월, 프랑스 기업가들을 이끌고 한국 산업체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동성 덕분에 양국 학교 간 학생교류도 활발해져 프랑스 여러 젊은이들이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한국 대학생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 프랑스로 유학을 오는 균등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년 전의 일방통행식 서구 유학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위에 자세하게 한국어 보급 상황을 열거한 이유는 유럽 내에서의 한국어 전파는 다각도의 종합적 시각으로 시작해야 그 성과와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음을 설명하려 함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피나는 노력이 많은 부분 재외동포들의 희생과 봉사에 의한 것이어서 무기한적으로 이들의 희생에만 기대서는 장기적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어떠한 값을 치르고라도 한국어를 정규 교육 기관에 정착시키려는 한국의 열망에 따라 영세한 강사료와 거주국 학교들의 과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하였지만 그 시간이 오래 가면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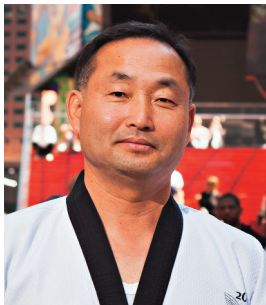
디기 힘들 것이다. 애국이라는 이름만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오래가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한국 측에서 얼마간의 재정지원을 하였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한국어 정착 사업의 주요 관건은 한국어 정착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선생님들을 거주국 교육 기관에서 명실공히 지역 사회 직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거주국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격려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재외 공관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몇 년의 임기가 끝나면 다른 임지로 떠나며, 거주국 실정을 잘 파악하기에는 그들이 머무는 기간이 교민에 비해 매우 짧다. 그러므로 한국의 관련 부처에서는 유능한 재외동포들을 업무 기획에서 진행까지 계획 사업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물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인으로 정착한 많은 재외동포는 조국의 세계무대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주리라 확신한다.





태권도의 우수한 교육적 가치



김경원
미주 태권도교육재단 이사장

미주 태권도 교육재단(US TAEKWONDO EDUCATION FOUNDATION)은 무술 태권도, 스포츠 태권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교육의 태권도를 미국 및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는 태권도의 미래는 블루오션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기도 하다. 태권도 교육의 장점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역의 구애도 받지 않으며, 3세에서 80세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거대한 응집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내놓을만한 살아있는 문화이다. 이미 유엔보다 많은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의 태권도를 높은 교육적 가치로 승화시켜 다른 기타 무술들과 차별화시킨다면 단일 운동 종목으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태권도 정신교육이 공립학교 교육의 중심에서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부모들이 감동을 받고, 교육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뭉클해진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이다. 주인이 없는 나라이다. 태권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중·고·대학에 태권도 교육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머지않아 미국은 우리 태권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2000년, 처음 태권도 교육이 미국 정부기관에 채택되었을 때 일이다.

‘파크 앤 레크레이션’이라는 기관에서 18가지 종목을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농구, 승마, 컴퓨터, 그림, 댄스, 종이 접기 등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태권도였다. 학생의 출석률이나 참여도에 의해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12주 동안 12시간의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각 종목 중에서 태권도만이 유일하게 100퍼센트 출석률과 100퍼센트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결과를 통해 태권도 교육의 우수함을 지역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후 이 교육을 접한 체육교사가 본인의 학교 체육시간에 태권도를 교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립학교 정규 체육수업에서 태권도를 통해 예절, 절도, 질서, 체력을 단련하며 12주간 시범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모인 수료식 자리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며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 뒤로 교육감과 주위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관심으로 2개의 학교가 정규 수업시간에 태권도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참여하는 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태권도 교육을 받는 학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체육수업 1년 계획에 맞추어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태권도 교재 및 교육용 자료를 발간하는 등 더욱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이에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공립학교에서 태권도 교육이 진행 및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어린이들은 본 재단 주최로 매년 봄에 열리는 챔피언십(Championship)에 참가하여 겨루기를 하고 이 대회에서 우승한 팀들은 그 해 6월,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여러 관중 앞에서 품새와 겨루기, 격파 등 수준 높은 경연을

펼친다. 타임스퀘어는 일반 공연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로서 이곳에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중심이 되어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 공연을 펼치게 됨은 태권도 세계화의 한 표상으로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다.

태권도 교육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다. 올바르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짜임새 있는 기획을 하여 매년 훌륭한 태권도 지도자들을 배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여 취업난에 도움이 되고 세계 기초 교육의 문화를 확립하여 태권도 문화를 수출하는 영원한 국영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를 지도하는 태권도 정신으로 무장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미주 태권도 교육재단은 100년의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며, 천 년을 이어가는 교육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소식

■ 재외동포신문 주최 ‘2013 한인동포 지도자 컨퍼런스’ 후원 및 참석

세계 한인회장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가한 재외동포신문 초청 ‘2013 한인동포 지도자 컨퍼런스’가 6월 21일(금) ~ 22일(토), 강원도 횡성 숲채원에서 열렸다. 본회(ICKC)는 이 행사를 후원함과 동시에 이광규 이사장, 박의근 재정위원장이 참석하여 운동본부를 소개하고 각국 한인회장에게 한국어와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 2013 세계태권도연맹-경희대 태권도 프로그램 한국어 강의

6월과 8월에 두 차례 열린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30여 개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유단자들을 대상으로 한 ‘2013 세계태권도연맹-경희대 태권도 프로그램(WTF-KHU Taekwondo program)’의 한국어 강의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에서 담당하였다. 이미 태권도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낯설지 않은 태권도 유단자들은 일반 한국어 수강자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났기에 한국어와 태권도의 연계에 대한 가능성과 효율성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대표 문화인 두 영역의 상호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 (사)해외책보내기운동본부의 책보내기 운동 참여

지난 7월, 본회는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도서를 공급하고 있는 (사)해외책보내기운동본부(이사장 손석우)의 책 모집 운동에 동참하였다. 우리 문화를 접하기 힘든 재외동포에게 고국의 책을 공급하는 의미 있는 일에 회원들이 기부한 책 100 여권을 해외책보내기운동본부에 전달하였다.

■ 2013 홍천 마리소리 여름축제 협찬 및 참여

홍천 마리소리 음악연구원 주최로 이루어진 마리소리 여름축제가 8월 17일(토),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국악과 서양음악, 시화전과 공예체험, 농악과 선무도 등 자연과 소리와 사람이 어우러진 즐거운 잔치마당이었다. 본회는 우리 음악 발전을 위해 축제 협찬과 함께 회원들이 참여하여 우리 문화를 즐겁게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후원 회비 보내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사)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사)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기사로 보는 한국어·태권도 소식

[한국어]



독일 중고등학교, 한국어 제3외국어로 채택

독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게잡트슐레(종합학교)인 함부르크 주립후랭켈종합학교(Gesamtschule Frinkelstrasse)에서 ‘한국어’를 제3외국어로 공식 채택하고, 8월 16일(금)에 첫 수업이 실시되었다. 이를 전해들은 동포들과 공관에서는 ‘한·독 수교 130년 만에, 그리고 주함부르크 한국 공관이 문을 연지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간 독일 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은 대학, 국제학교(Internationalschule), 또는 시민대학(Volkshochschule)에 개설되었고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출처] 연합뉴스 2013. 8. 29.

[태권도]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광복절 태권도 시범

미국 동부 한인학생 네트워크 ‘아라리오’가 8월 15일(현지시간) 광복절을 알리는 행사를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었다. 100여 명의 태권도 시범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코리아태권도, 뉴욕한인합창단 등 4개 한인단체가 함께 참여해 풍물놀이와 합창단의 아리랑 공연도 선보였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3. 08. 17.

미국 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태권!’

뉴욕 일원 정규학교의 태권도 체육 수업이 4년간 14배의 성장을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0년 4월, 동서국제학교 70명에서 시작한 태권도 수업은 2013~14학년도를 시작하는 올해 가을, 시내 총 11개교에서 980명이 수강할 예정이다. 수적인 수강생 증가만으로도 4년 만에 14배가 성장한 것이다.

전년도인 2012~13학년도의 6개교 510명과 비교해도 한해 사이 92%의 수강생 증가를 보인 셈이다. 특히 올해 가을에는 ‘헬스&사이언스 차터스쿨’이 뉴욕시에서 태권도 수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전교생(6~9학년 450명)이 태권도를 체육 과목으로 수업 받는 최초의 학교가 됐다. 플러싱 고등학교에 문을 여는 베리타스 아카데미도 개교 첫해 한국어 ESL과 더불어 태권도 수업도 함께 제공한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3. 08. 20.